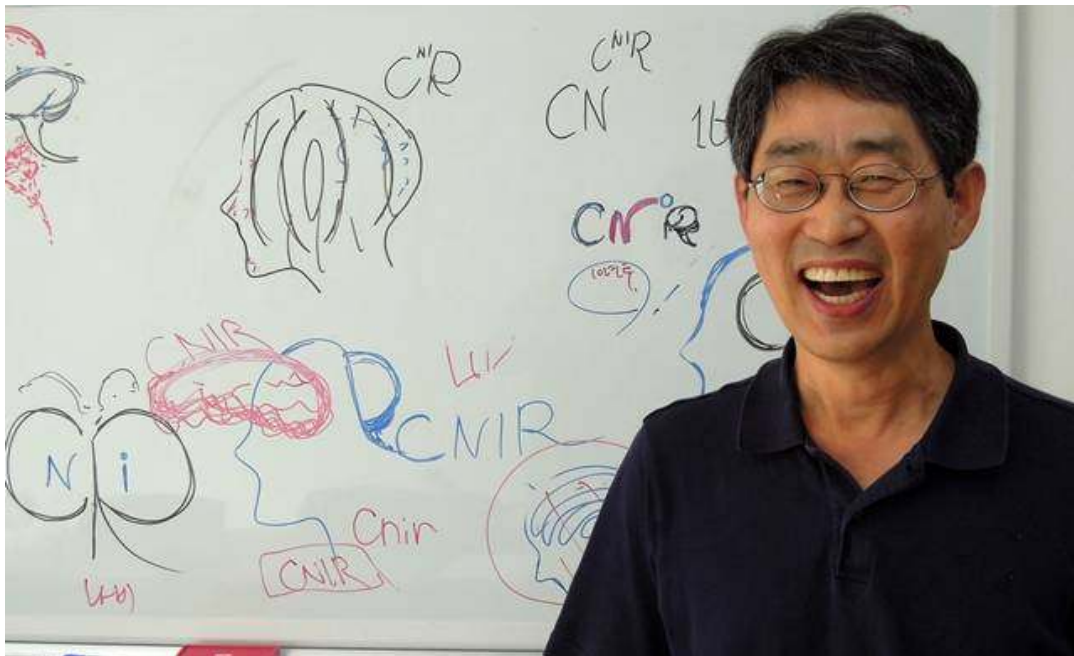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美 석좌교수 내려왔다"

[인터뷰] 김성기 IBS 뇌과학이미징연구단장

"개인 생각하면 미국 낫지만 다음 세대 연구도대 위해 IBS로"

기사입력 2013.10.28 | 최종수정 2013.10.28 | 수원=최동진 | padi484979@hellodd.com



"여건이 되면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쯤 IBS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 3분이 찾아왔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10년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기 IBS 뇌과학이미징연구단장을 만나기 위해 21일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를 찾았다. 1983년 유학 후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김 단장은 서슴없이 "조국과 과학계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IBS 연구단장에 선임되면 2년 내에 완전 귀국해야 한다. '석좌교수를 포기했다'는 말에 그가 건넨 명함에 다시금 눈길이 쏠렸다.

피츠버그대 방사선학부 명함에는 '폴 로터버(Paul C. Lauterbur) 석좌교수'라고 또렷이 새겨 있었다. 폴 로터버는 현대식 MRI를 개발한 공로로 2003년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2007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모교인 피츠버그대는 로터버의 이름을 딴 석좌교수직을 만들었고, 그 자리를 김성기 단장이 맡았던 것. 국내에서는 김성기단장에 대해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제 학계에서는 이미 그 명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MRI 분야 최고 명예마저 던져버린 김 단장이 IBS 연구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더욱 궁금해졌다.

"나 개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남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은 뇌과학 연구를 활발히 지원하고, 연구제반 시설도 뛰어난 편입니다.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이 올 초 '뇌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뇌과학 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세대 노벨상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젊은 연구자들 환경은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IBS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더불어 제대로 된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평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당장 결과를 내려면 보여줄 수 있는 연구밖에 할 수 없다"면서 "IBS 목적이 뭐냐? 세계적인 센터를 꿈꾼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수 평가 프로세스에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 봉화가 고향인 김성기 단장은 경북대 졸업 후 1983년 아내 유학에 동행 차 미국으로 건너갔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워싱턴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NMR(핵자기공명기)를 다뤘다.

1992년 미네소타대 연구교수 시절 오가와 교수의 '감각기관 자극에 따른 고유 신호의 변화-MRI를 활용한 뇌기능 맵핑(Intrinsic Signal Changes Accompanying Sensory Stimulation: Functional Brain Mapping with Magnetic Resonance Imaging)'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해 MRI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2002년부터 피츠버그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3년 4월 IBS 3차 연구단장으로 선정됐다.

창닫기